

베이비붐 세대의 성공적 노화에 관한 연구 : Rowe & Kahn 이론을 적용하여

Study on the Successful Aging of Baby-Boom Generation : Application of Rowe & Kahn's Theory

전병주*, 한혜숙**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한국교통대학교 간호학과**

Byeong-Joo Jeon(okbj@cbnu.ac.kr)*, Hye-Sook Han(hshan@ut.ac.kr)**

요약

본 연구는 한국에서 전체 인구의 15%를 차지하는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기에 진입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베이비붐 세대의 성공적 노화 수준 및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Rowe & Kahn의 이론을 적용하였고, 고령화연구패널조사의 5차 기본조사와 특별조사의 데이터를 결합하여 총 2,577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자료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ver. 20.0을 이용하였으며,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성공적 노화 수준(범위: 0~9점)은 6.36 ± 1.39 로 나타나 베이비붐 세대의 성공적 노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성공적 노화의 하위요인에 따라 성공적 노화로 판단된 비율이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베이비붐 세대의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용돈 수준, 교육수준, 자녀관계 만족도 등이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성공적 노화의 대표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Rowe & Kahn의 이론을 적용함으로써 베이비붐 세대의 성공적 노화에 대해 통합적으로 파악하며 그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나아가, 베이비붐 세대의 성공적 노화에 대해 보다 정확히 규명하기 위해서 성공적 노화에 대한 보다 엄밀한 개념화를 시도하고, 사회적으로 합의된 측정요인을 발굴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함을 제언하였다.

■ 중심어 : 베이비붐 세대 | 성공적 노화 | 용돈 | 교육수준 | 자녀관계 |

Abstract

Considering the reality that the baby boom generation which takes up 15% of the Korean population enters the old age,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level and factors affecting successful aging of the baby boom generation. The theory this study used is Rowe & Kahn, and the data it used are from 2,577 persons combining respondents of the fifth basic survey and the special survey of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This study utilized IBM SPSS Statistics ver. 20.0 for analysis, and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successful aging level of the baby boom generation was 6.36 ± 1.39 (range: 0~9), proving that they consider their aging as successful. However, depending on sub-factors of successful aging, proportion that they viewed themselves as successfully aging were quite different. Second, examination of factors affecting successful aging of the generation found out that pocket money, educational level, and child-parents relationship satisfaction are important. By applying the theory of Rowe & Kahn which can be called the representative model of successful aging, this study examined successful aging and extracted some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es.

■ keyword : Baby Boom Generation | Successful Aging | Pocket Money | Educational Level | Child-parents Relationship |

1. 서론

1. 연구 필요성

한국의 고령화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 2017년에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14%를 넘는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26년에는 그 인구가 20%를 넘어 초고령사회가 될 전망이다[1]. 이러한 추세는 지속되어 2050년에는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37%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한국에서의 노인문제는 개인 또는 가족이 아닌 사회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전체 인구의 15%를 차지하는 베이비붐 세대(1955년~1963년에 출생한 집단)가 노년기에 진입하면서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기 삶은 개인적 차원에서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노인 부양에 대한 사회적 부담과 직결되기 때문에 사회적 차원에서도 주요 관심사가 되었다¹⁾.

베이비붐 세대는 산업화의 성공으로 이전 세대보다 경제적 풍요 속에서 생활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부모에 대한 부양책임을 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성인 자녀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때문에 정작 자신들의 노년기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2][3]. 또 다른 선행연구에서는 베이비붐 세대가 이미 노년기를 보내고 있는 이전노인 세대보다 노후준비가 부족한 것은 물론 건강증진행위가 양호하지 못하다고 지적하며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였다[4][5].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와 같이 특정 세대의 노년기 문제를 이미 경험한 미국과 일본에서는 노년기에 대해 경제적 위험에 직면해 있으며, 신체적·정신적으로 취약하다는 전제 하에 문제 중심적인 관점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다[6]. 하지만, 이러한 접근이 노년기 삶을 개선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7][8]. 최근에는 노년기의 질병과 쇠퇴에 대한 관심에서 벗어나 보다 행복한 노후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이른바 '성공적 노화(successful aging)'에 주목하며, 이에 대한 영향요인을 규명하는 등 본격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7][8]. 노인이 잘 늙는다는 것, 즉

'성공적 노화'라는 패러다임은 노년기의 '상실', '저하'에 초점을 맞춰온 과거의 패러다임과 비교해 볼 때, 노화에 대한 부정적인 모습을 제거하고 노년기의 잠재력을 증진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9].

한편, 이미 노년기를 맞이한 경우에 성공적 노화는 결과론이 될 수 있겠지만, 노년기를 바라보는 베이비붐 세대에게는 곧 다가올 노년기에 대해 성공적으로 맞이하기를 기대하며 노화 수준을 예측하고 미흡한 부분을 준비할 수 있다[10]. 하지만, 한국 사회는 압축적인 고도성장이 이루어지면서 개인에 따라 근대화, 도시화에 대한 경험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그에 따라 교육수준, 건강 수명 등에서 개인마다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서 성공적 노화의 수준도 매우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11]. 더욱이 한국 사회의 사회보장제도가 사회안전망으로서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므로 베이비붐 세대의 건강함과 안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12].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의 성공적 노화 수준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본격적인 노년기를 준비해야 하는 베이비붐 세대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의미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베이비붐 세대가 성공적으로 노화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개인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 지지적 체계 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중재전략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에서도 성공적 노화에 대한 연구가 많이 보고되었으나, 베이비붐 세대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제한적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지금까지 보고된 여러 연구가 길어진 노년기를 고려하지 않고 수십 년의 연령 격차가 있는 모든 노인을 함께 분석함으로써[13][14] 노인 집단 내에서도 다양한 계층이 존재하고 서로 특성이 다르다는 점을 간과하고 연구를 진행하여 베이비붐 세대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최근에 이르러 베이비붐 세대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보고되고 있으나, 성공적 노화를 측정하면서 노년기의 삶에서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건강영역을 제한적으로 구성하였거나[16], 변수 범위가 불충분하고 체계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8]. 또한,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

1) 한국에서 베이비붐 세대는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한국 전쟁 종전 후인 1955년부터 1963년에 사이에 태어난 집단을 말한다[15].

문제에 치중하거나 사회환경적 요인을 거의 고려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6]. 무엇보다 선행연구에서는 성공적 노화의 개념에 대해 연구자마다 서로 다른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나 측정도구가 합의되지 않고 있어 성공적 노화의 수준에 대해서도 일관된 결과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13].

이에 본 연구에서는 Rowe & Kahn(1998)[17] 이론을 적용하여 베이비붐 세대의 성공적 노화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Rowe & Kahn이 제시한 성공적 노화의 개념은 현재 많은 연구에서 이용되는 대표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6][18]. Rowe & Kahn은 1984년부터 의학, 사회학 등 분야의 학자들과 노화와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여 보통 노화와 성공적 노화가 다른 차원이라고 주장하며, 성공적 노화를 위해서 질병 예방, 신체·인지적 기능상태 강화와 더불어 생산 활동과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즉, Rowe & Kahn은 성공적 노화에 대해 낮은 질병률 및 장애 위험, 높은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기능과 인지적 기능, 실제적 활동을 통한 적극적인 사회참여로 구성하였다.

이렇게 Rowe & Kahn은 노인에게 질병과 장애가 없으면 신체적·인지적 기능을 보다 쉽게 유지할 수 있으며, 신체적·정신적 그리고 인지적 기능을 잘 유지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 성공적인 노화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19]. Rowe & Kahn의 모델은 기존의 성공적 노화 모델에서 사회 환경적 측면을 포함시켰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20], 다학제적인 접근을 통해 통합적인 성공적 노화의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최근 학문적 트렌드에도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13].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Rowe & Kahn의 모델을 적용하여 베이비붐 세대의 성공적 노화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문제 중심의 노화 개념을 넘어 보다 긍정적이고 성공적인 노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베이비붐 세대의 특성과 위기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21].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에서 노년기의 경제적 안정이 성공적 노화를 결정하는 핵심적 요인이라고 보고하였으며[22], 국내 연구에서는 국외 연구와 달리 가족관계와 배우자 유무가 성공적 노화의 주요 변인이라고 보고하였다[26]. 또한, 한국사회에서의

교육수준은 전 생애를 통해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14].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베이비부머의 개인적 특성, 가족 지지적 체계 및 경제적 체계를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실제로, 최근 20년 동안 국내에서 발표된 성공적 노화에 대한 연구에서 건강 및 경제적 상태가 성공적 노화를 위한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되었다[23]. 특히, 한국에서 주거를 소유하지 못한 경우에 주거 불안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삶의 질이 저하되며[24], 베이비붐 세대는 이후 세대보다 부동산 자산이 삶의 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25]. 그리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성공적 노화 정도가 높다고 인식하거나 삶의 질이 더 좋은 것으로 보고되었으며[21], 노년기가 길어지면서 배우자의 죽음 사건을 기점으로 자녀와의 관계는 노년기 삶에서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23].

이외에도 개인적 특성과 관련하여 조사대상자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성공적 노화의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14]. 반면에, 일부 연구에서 성별은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7], 또 다른 연구에서는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22]. 또한, 거주 지역에 따른 성공적 노화는 농촌 지역의 노인은 도시지역의 노인보다 안정적인 노년기를 보낼 수 있어 생활만족도가 높다고 보고했지만[27], 또 다른 연구에서는 농촌 지역이 도시지역보다 생활환경과 여가활용이 열악하여 삶의 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28]. 이와 같이 조사대상자의 성별 또는 거주 지역에 따라 노년기 삶에 대한 연구결과가 상이하므로 보다 면밀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Rowe & Kahn(1998)[17]의 이론을 적용하여 베이비붐 세대의 질병, 기능 및 사회참여 등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고유 특성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베이비붐 세대의 성공적 노화 가능성에 관련된 기초자료를 구축함으로써 초고령사회에서의 성공적 노화를 준비하고 실천할 수 있는 함의를 도출하고

자 하였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의 고령화연구패널조사(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를 이용하여 Rowe & Kahn의 모델을 바탕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성공적 노화 수준과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이차자료 분석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제5차 기본조사(1909년~1961년생) 데이터와 추가 모집(특별조사)한 대상자(1962년~1963년생)에 대한 데이터를 결합하였으며, 그 중에서 1955년~1963년에 태어난 2,577명의 베이비부머를 최종 연구대상으로 하였다²⁾.

3.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자의 특성과 성공적 노화에 대한 하위영역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3.1 조사대상자의 특성

3.1.1 개인적 특성

성별(남, 여), 거주 지역(시, 군), 교육수준을 조사하였다. 교육수준은 중학교 졸업 이하,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이상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3.1.2 가족 지지적 체계

배우자 유무,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서 현재 배우자가 있는지 또는 사별과 이혼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지를 조사했으며, 자녀와의 관계만족도는 보기카드(0~100점)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2) 제1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가 진행되었던 2006년 당시에는 1962년과 1963년생이 조사대상 기준(만 45세)에 해당되지 아니했던 점을 고려하여 1962년과 1963년 출생자를 추가적으로 모집하여 특별조사를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1955년~1959년 출생자 1,293명과 1960년~1963년 출생자 1,284명으로 구성되었다.

3.1.3 경제적 체계

가구의 순소득, 용돈 수준, 주거 형태를 조사하였다. 가구의 순소득은 지난해 근로 총소득과 공적이전소득 등을 포함한 가구 총소득에서 가구 생활비를 차감하여 (+) 또는 (-)에 해당하는지 조사하였다. 그리고 조사대상자들이 사용 가능한 용돈 수준에 대해 만원/월 단위로 조사했으며, 현재 자가 또는 전·월세 중 어떤 주거형태에서 거주하는지를 조사하였다.

3.2 성공적 노화

성공적 노화 수준은 질병 및 장애의 부재, 기능상태(신체적·정신적 기능, 인지적 기능), 사회참여 영역에서의 각각의 점수를 합하여 측정하였고, 성공적 노화가 인정될 경우에 각 영역별로 1점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조사대상자들의 성공적 노화 수준은 총 0~9점 사이에 분포하며, 이 점수가 높을수록 조사대상자의 성공적 노화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3.2.1 질병 및 장애의 부재

본 연구에서 질병 및 장애의 부재를 파악하기 위해 만성질환, 건강행태, 주관적 건강상태를 조사하였다.

만성질환은 고혈압, 당뇨병, 뇌혈관질환 등의 9개 질환에 대해 의사로부터 진단받은 적이 있는지 조사하였다. '만성질환이 없다'라고 응답했을 때 성공적 노화로 판단하였고, 이 경우에 1점을 부여하였다.

건강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흡연, 음주, 운동 및 영양에 대해 조사하였다. 흡연은 현재 담배를 피우는지 조사했으며, 음주는 평소에 가끔 또는 자주 술을 마시는지 조사하였다. 운동은 평소에 일주일에 1회 이상 운동을 하는지 조사했으며, 영양은 지난 이틀 동안 식사를 6번 했는지 조사하였다. 이러한 4가지 요건 즉, 현재 담배를 피우지 않을 때, 술을 마시지 않을 때, 운동을 일주일에 1회 이상 규칙적으로 할 때 그리고 식사를 이틀 동안 6번 했다고 응답했을 때 건강행태에서 성공적 노화로 판단하였고, 이 경우에 1점을 부여하였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조사대상자가 생각하는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매우 나쁘다(1)'부터 '매우 좋다(5)'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에서 응답했으며, 조사대상자들이 '좋다' 또는 '매우 좋다'라고 응답했을 때 성공적 노화로

고 판단하였고, 이 경우에 1점을 부여하였다.

3.2.2 기능상태

조사대상자의 신체적·정신적 기능과 인지적 기능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 우울 수준, 인지기능을 조사하였다.

먼저, IADL은 몸단장 하기, 식사 준비하기, 빨래하기, 교통수단 이용하기, 약 챙겨먹기 등의 10개 영역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를 조사했으며, 조사대상자들은 ‘도움이 필요 없다’,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로 구분하여 응답한다. 여기서 ‘도움이 필요 없다’라고 응답했을 때 성공적 노화라고 판단하였고, 이 경우에 1점을 부여하였다.

우울 수준은 CES-D10으로 측정하였고, 각 문항에 대하여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음’이라고 응답한 경우에 0점을 부여하였고, 그 외 응답에 대해서는 1점을 부여하였다. 이에 따라 조사대상자들은 0~10점에 분포하게 된다. 본 연구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 기본조사를 기준[29]으로 이 점수가 4이상인 경우에 우울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3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성공적 노화라고 판단하였고, 이 경우에 1점을 부여하였다.

인지기능을 파악하기 위해 간이정신상태검사(Mini-Mental State Examination: MMSE)로 측정하였다. 여기서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서의 인지력 판정기준을 적용하여[29] 인지기능 점수가 17이하이면 치매가 의심되고, 18이상 23이하의 값이면 인지기능 저하로 판정하였다. 점수가 24 이상으로 나타나 치매 의심 또는 인지기능 저하로 판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성공적 노화라고 판단하였고, 이 경우에 1점을 부여하였다.

3.2.3 사회참여

사회 참여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취업, 친구와 친척 등과의 교류, 여가활동 참여로 측정하였다.

먼저, 취업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서의 기준을 이용하여 현재 직장에 다니거나 자기 사업 또는 가족이나 친척의 일을 도와주는 것을 포함하여 일하고 있는지를 조사했으며, 현재 일하고 있다(취업상태)고 응답 했을 때 성공적 노화라고 판단하였고, 이 경우에 1점을 부여하였다.

친구, 친척 등의 사람들과 교류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한 달에 1~2회 이상 교류한다’라고 응답했을 때 성공적 노화라고 판단하였고, 이 경우에 1점을 부여하였다. 여가활동에 대해서는 종교모임 등의 단체활동, 영화와 전시회 등을 관람한 적이 있는지를 조사했으며, 이러한 모임에 참여한다고 응답한 경우에 성공적 노화라고 판단하였고, 이 경우에 1점을 부여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조사도구에 대하여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조사항목 및 도구

구분		내용	
성공적 노화	질병 및 장애 부재	만성 질환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등 만성질환 보유
		건강 행태	흡연(현재 담배를 피우는지)
			음주(평소에 가끔 또는 자주 술을 마시는지)
			운동(일주일에 1회 이상 규칙적 운동)
	영양(규칙적 식사: 이를 동안 6회 식사)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 나쁘다’부터 ‘매우 좋다’까지 중에서 응답	
	기능 상태	신체	IADL: 식사 준비, 빨래하기 등 10개 영역에서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
		정신	우울: CES-D10
		인지	간이정신상태검사(MMSE)
	사회 참여	취업	취업 여부
친구교류		친구, 친척 등 교류 횟수	
여가활동		종교활동, 동호회, 영화관람 등	
전체 수준		0~9점	
조사 대상자	개인 특성	성별	남성, 여성
		거주지역	시, 군
		교육수준	중학교 졸업~대학교 졸업
	가족 지지 체계	배우자	배우자 유무
		자녀관계 만족도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특 성	순소득	가구 총소득 - 가구 생활비	
	용돈수준	용돈 수준(단위: 만원/월)	
	주거형태	자가, 기타(전·월세)	

4.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 IBM SPSS Statistics ver. 20.0을 이용하였다. 먼저, 조사대상자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집단별로 성공적 노화의 수준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t검정과 ANOVA를 실시하였고, 사후검정으로 Scheffe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사대상자들의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5. 윤리적 고려

본 연구자는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개인 식별 내용이 제외된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교의 생명윤리위원회에서 심의 면제를 받은 후 연구를 시행하였다(승인번호: KNUT IRB-51).

III.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특성

조사대상자들의 특성은 다음 [표 2]와 같다.

개인적 특성과 관련하여, 성별은 여성이 1,447명(56.2%)으로 나타났으며, 거주 지역은 시 지역이 2,174명(84.4%)으로 조사되었다.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이 1,354명(52.5%)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족 지지적 체계와 관련하여, 배우자 유무에 대해 조사한 결과, 현재 '배우자가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2,313명(89.8%)으로 조사되어 사별과 이혼 등으로 '배우자가 없다'라고 응답한 경우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관계 만족도(범위: 0~100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평균은 약 73점으로 나타났다. 자녀관계 만족도에 대해서 '70점~80점'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918명(61.4%)으로 조사되어 가장 많았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체계와 관련하여, 가구 순소득(1년 동안 가구 총소득-생활비)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가구 총소득이 생활비보다 많다고 응답한 경우는 1,513명(87.5%)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들이 매월 사용할 수 있는 용돈을 조사한 결과, 전체 평균은 약 23만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용돈 수준은 '21만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917명(35.6%)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주거형태를 살펴본 결과, '자가'라고 응답한 경우가 2,051명(79.6%)로 조사되어 '전·월세'라고 응답한 경우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n	%	M±SD
개인적특성	성별	남	1,130	43.8
		여	1,447	56.2
		합계	2,577	100.0
	거주 지역	시	2,174	84.4
		군	403	15.6
		합계	2,577	100.0
교육 수준	중학교	634	24.6	
	고등학교	1,354	52.5	
	대학교	589	22.9	
	합계	2,577	100.0	
가족 지지 체계	배우자 유무	있음	2,313	89.8
		없음	264	10.2
		합계	2,577	100.0
	자녀 관계 만족도	60점 이하	324	21.7
70~80점		918	61.4	
90점 이상		252	16.9	
	합계	1,494	100.0	73.13±13.91
경제적 체계	가구 순소득	(+)	1,513	87.5
		(-)	217	12.5
		합계	1,730	100.0
	용돈 수준	10만원	857	33.2
		11~20만원	803	31.2
		21만원이상	917	35.6
	합계	2,577	100.0	22.92±17.43
주거 형태	자가	2,051	79.6	
	전월세 등	526	20.4	
	합계	2,577	100.0	

2.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성공적 노화 수준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성공적 노화의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서 질병 및 장애의 부재, 기능상태, 사회참여 등 3개의 영역에서 각각의 점수를 합하여 측정된 결과(범위: 0~9점), 조사대상자들의 전체 평균은 6.36±1.39로 나타났다. 그리고 조사대상자들의 성공적 노화 수준은 6점(25.2%)과 7점(30.0%)에 가장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성공적 노화의 수준

(N=2,577)

구분	n(%)	M±SD	Min	Max	range
4점 이하	232(9.0)	6.36±1.39	.00	9.00	0~9
5점	377(14.6)				
6점	649(25.2)				
7점	774(30.0)				
8점 이상	545(21.2)				

다음으로, 조사대상자들의 성공적 노화에 대해 하위 영역별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첫째, 질병 및 장애의 부재와 관련하여, 조사대상자가 보유한 고혈압,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에 대해 조사한 결과, 만성질환이 '없음'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2,335명(90.6%)으로 나타났으며, 만성질환이 '1개'라고 응답한 경우는 204명(7.9%), '2개 이상' 보유했다고 응답한 경우는 38명(1.5%)으로 나타났다. 건강행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금연과 금주, 규칙적 운동 및 식사(영양) 등 4개의 영역에서 모두 실천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410명(15.9%)으로 나타났다. 금연, 금주, 규칙적 운동 및 식사 중 3개 영역에서 실천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1,044명(40.5%), 2개의 영역에서 실천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769명(29.8%)으로 나타났다³⁾.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매우 좋다' 또는 '좋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1,434명(55.6%)으로 나타났다.

둘째, 신체적·정신적·인지적 기능 상태와 관련하여,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을 조사한 결과, '도움이 필요 없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2,444명(94.8%)으로 나타났다. 우울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서 CES-D10으로 측정된 결과, 정상(3점 이하)인 경우는 1,815명(70.4%)으로 나타났다. 인지기능에 대해 간이정신상태검사(MMSE)로 측정된 결과, 정상(24점 이상)인 경우는 2,420명(93.9%)으로 나타났다.

셋째, 조사대상자들의 사회 참여와 관련하여, 현재 직업에 다니거나 자기 사업 또는 가족이나 친척의 일을 도와주는 것을 포함하여 일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들 중에서 1,857명(72.1%)이 현재 일하고 있는 것(취업상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친구, 친척 등의 사람들과 교류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 중에서 2,215명(86.0%)이 한 달에 1~2회 이상 교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기준보다 교류가 적거나 교류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362명(14.0%)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종교모임, 동호회 등의 단체활동, 영화와 전시회 관람 등의 여가활동에 대해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들 중에서 1,484명(57.6%)이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조사대상자 중에서 흡연과 음주를 한다는 응답은 각각 446명(17.3%)과 1,256명(48.7%)으로 나타났으며, 규칙적 운동과 규칙적 식사를 한다는 응답은 각각 882명(34.2%)과 2,302명(89.3%)으로 나타났다.

표 4. 성공적 노화에 대한 하위영역별 수준 (N=2,577)

		구분	n	%	
질병 및 장애 부재	만성 질환	없음	2,335	90.6	
		보유	1개	204	7.9
			2개 이상	38	1.5
	건강 행태	4개 실천	410	15.9	
		기타	3개 실천	1,044	40.5
			2개 실천	769	29.8
			1개 실천	354	13.8
건강 상태	(매우) 좋음	1,434	55.6		
	기타	1,143	44.4		
기능 상태	IADL	정상	2,444	94.8	
		도움 필요	133	5.2	
	우울	3점 이하	1,815	70.4	
		4점 이상	762	29.6	
		인지 기능	정상	2,420	93.9
	의심, 저하	157	6.1		
사회 참여	취업	취업	1,857	72.1	
		미취업	720	27.9	
	친구 교류	교류	2,215	86.0	
		미교류	362	14.0	
		여가 활동	참여	1,484	57.6
미참여	1,093		42.4		

3. 성공적 노화에 대한 집단별 수준 차이

성공적 노화에 대해 조사대상자들의 특성에 따른 집단별 수준 차이 및 사후분석(Scheffe)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먼저, 조사대상자들의 개인적 특성과 관련하여, 남성이 여성보다 성공적 노화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t=3.53, p<.001$), 시 지역에서 거주하는 집단이 군 지역에서 거주하는 집단보다 성공적 노화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5.60, p<.001$). 그리고 교육수준은 '대학교 졸업 이상'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성공적 노화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91.91, p<.001$).

그리고 가족 지지적 체계와 관련하여, 현재 배우자가 있는 집단이 배우자가 없는 집단보다 성공적 노화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t=6.95, p<.001$), 자녀와의 관계만족도가 '60점 이하'이라고 응답한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성공적 노화 수준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F=27.07, p<.001$).

마지막으로 경제적 체계와 관련하여, 가구 총소득이 생활비보다 많다고 응답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성공적 노화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t=4.65, p<.001$), 용돈 수준이 '21만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성공적 노화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149.88, p<.001$). '자가'에 거주하는 집단이 '전·월세'에 거주하는 집단보다 성공적 노화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4.27, p<.001$).

표 5.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성공적 노화의 차이 (N=2,577)

구분			M±SD	t/F	p	사후 분석	
개인적 특성	성별	남	6.47±1.40	3.53	<.001		
		여	6.28±1.37				
	거주 지역	시	6.43±1.37	5.60	<.001		
		군	6.01±1.41				
	교육 수준	중학교 졸업 이하 ^a	5.78±1.53	91.91	<.001		a(b/c)
		고등학교 졸업 ^b	6.46±1.27				
대학교 졸업 이상 ^c		6.78±1.28					
가족 지지 체계	배우자 유무	있음	6.44±1.33	6.95	<.001		
		없음	5.71±1.64				
	자녀 관계 만족도	60점 이하 ^a	6.01±1.41	27.07	<.001		a(b, c)
		70~80점 ^b	6.54±1.21				
		90점 이상 ^c	6.73±1.30				
경제적 체계	가구 순소득	(+)	6.46±1.29	4.65	<.001		
		(-)	6.01±1.45				
	용돈 수준	10만원 이하 ^a	5.76±1.51	149.88	<.001		a(b/c)
		11~20만원 ^b	6.47±1.30				
		21만원 이상 ^c	6.83±1.11				
	주거 형태	자가	6.42±1.35	4.27	<.001		
전·월세		6.13±1.49					

4. 주요 변인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는 다음 [표 6]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성별($r=.06, p<.001$), 거주 지역($r=.11, p<.001$), 교육수준($r=.26, p<.001$), 배우자 유무($r=.15, p<.001$), 자녀관계 만족도($r=.20, p<.001$), 순소득($r=.11, p<.001$), 용돈 수준($r=.33, p<.001$), 주거 형태($r=.08, p<.001$)는 성공적 노화와 정적(+)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사대상자가 남자인 경우, 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자녀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가구 총소득이 생활비보다 많은 경우, 용돈 수준이 높을수록, 자가에 거주하는 경우에 성공적 노화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주요 변인의 상관관계

구분	성별	거주 지역	교육 수준	배우자 유무
성공적 노화	.06(<.001)	.11(<.001)	.26(<.001)	.15(<.001)
구분	자녀관계 만족도	가구 순소득	용돈 수준	주거 형태
성공적 노화	.20(<.001)	.11(<.001)	.33(<.001)	.08(<.001)

5.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자들의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7]과 같다.

본 연구에서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토하여 회귀식의 모든 가정이 충족된 것으로 나타났다. 히스토그램과 회귀표준화 잔차가 45° 직선에 근접하여 오차의 정규분포와 등분산성 가정을 만족하였으며, 오차의 자기상관을 나타내는 Durbin-Watson 통계량은 1.725로 나타나 기준값(2)에 근접하여 잔차들 간에 자기상관에 문제가 없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독립변수들 간에 다중공선성 발생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분산팽창계수 (Variance Inflation Factor; VIF) 값을 파악한 결과, 모두 2.0 이하로 나타나 변수 간에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조사대상자의 교육수준($p<.001$), 배우자 유무($p=.002$), 자녀관계 만족도($p<.001$), 가구 순소득($p=.002$), 용돈 수준($p<.001$), 주거형태($p=.043$)가 성공적 노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과 거주 지역은 성공적 노화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모델의 설명력은 12.4%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19.13, p<.001$).

즉, 본 연구에서 베이비붐 세대들은 교육수준이 '중학교 졸업 이하'보다 '고등학교 졸업'과 '대학교 졸업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자녀관계 만족도가 '60점 이하'보다 '70점~80점'과 '90점 이상'인 경우, 가구의 총소득이 생활비보다 많은 경우(순소득>0), 용돈이 '10만원 이하'보다 '11만원~20만원'과 '21만원 이상'인 경우, 주거형태가 자가인 경우에 성공적 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대상자가 21만원 이상의 용돈($\beta=.20$), 대학교 졸업 이상의 교육

수준($\beta=.14$), 90점 이상의 자녀관계 만족도($\beta=.13$) 경우에 성공적 노화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구분	B	SE	β	t(p)	
상수	4.99	.14		34.83(<.001)	
개인적 특성	성별(남)	.03	.07	.01	.51(.606)
	거주지역(시)	.14	.09	.04	1.57(.116)
	교육(고교졸업)	.35	.08	.13	4.34(<.001)
	교육(대학교졸업이상)	.46	.10	.14	4.32(<.001)
가족	배우자(있음)	.30	.09	.08	3.17(.002)
지지적 체계	자녀관계(70~80점)	.28	.08	.11	3.52(<.001)
	자녀관계(90점이상)	.43	.10	.13	4.20(<.001)
경제적 체계	순소득(+)	.30	.09	.08	3.16(.002)
	운동(10~20만원)	.41	.07	.15	5.25(<.001)
	운동(21만원 이상)	.53	.08	.20	6.21(<.001)
	주거형태(자가)	.16	.08	.05	2.02(.043)
Adj. R ² F(p)	.124 19.13(<.001)				

IV. 요약 및 논의

본 연구에서 나타난 연구결과에 대한 요약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1. 성공적 노화의 수준

본 연구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성공적 노화 수준(범위: 0~9점)을 측정된 결과, 성공적 노화의 수준은 6.36 ± 1.39 로 나타났으며, 베이비붐 세대는 6점(25.2%)과 7점(30.0%)에 가장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베이비붐 세대의 성공적 노화 수준은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베이비붐 세대의 성공적 노화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와 이전 노인세대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는 성공적 노화의 개념과 측정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연구결과에 대해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없으므로 본 연구결과에 대한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더욱이 본 연구에서 성공적 노화의 하위요인에 따라 성공적 노화로 판단된 비율이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공적 노화의 하위요인 중에서 질병 및 장애 부재에서의 만성질환 영역(90.6%), 기능상태에서 신체적 기능(IADL: 94.8%)과 인지기능(93.9%)은 다른 영

역보다 성공적 노화로 판단된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질병 및 장애 부재에서 건강행태(15.9%), 주관적 건강상태(55.6%) 그리고 사회참여에서 여가활동(57.6%)은 다른 영역보다 성공적 노화로 판단된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베이비붐 세대는 성공적 노화의 하위요인 중에서 건강행태, 주관적 건강상태, 여가활동 영역에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해 3개 영역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베이비붐 세대는 노년기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건강행태가 다른 영역보다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베이비붐 세대는 건강행태 중 금연(82.7%)과 규칙적인 식사(89.3%)에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베이비붐 세대에서 금주(음주를 하는 비율: 48.7%)와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비율(34.2%)은 다른 건강행태보다 양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베이비붐 세대는 규칙적 운동(34.2%)금주(51.3%), 금연(82.7%), 규칙적인 식사(89.3%) 등의 순서로 건강행태를 보이고 있다. 김명일 등(2017) 연구[30]에서 전기노인 세대(65~74세)는 흡연(13.1%)과 음주(31.5%)를 하는 비율이 후기노인 세대(75세 이상)보다 더 높게 조사되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모습이 크게 나타났으나, 전기노인 세대(65~74세)는 규칙적 운동(60.8%)과 규칙적 식사(69.3%)에서 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본 연구결과와 김명일 등(2017) 연구[30]는 비교 집단의 연령 범위가 상이하여 직접적으로 연구결과를 비교할 수 없어 단정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다만, 베이비붐 세대는 전기 노인세대보다 금주와 규칙적 운동 등이 양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베이비붐 세대가 금주와 운동을 중심으로 한 건강증진행위의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더욱이 본 연구에서 건강행태에 대해 4개 영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가 15.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규칙적 운동을 한다는 비율이 조사대상자 중에서 1/3 정도에 그친 것이 큰 영향을 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노인들의 금연, 금주 및 운동 등의 건강증진행위는 삶의 질에 직·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므로[31][32] 베이비붐

세대의 성공적 노화를 위해서 건강행태에 반드시 주목해야 할 것이다.

둘째, 주관적 건강상태와 관련하여, 베이비붐 세대는 주관적 건강상태가 다른 영역보다 양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복지패널을 분석한 연구에서 베이비붐 세대가 그 이전세대(1954년 이전 출생)보다 자신의 건강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3], 한국노동패널을 이용하여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베이비붐 이전세대(1941년~1954년)가 베이비붐 세대보다 약 2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5].

이와 같이 여러 선행연구에서는 베이비붐 세대가 그 이전세대보다 건강상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본 연구에서 베이비붐 세대는 음주와 운동 부족 등의 건강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있어 스스로 자신의 건강상태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수준이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베이비붐 세대는 노부모에 대한 부양책임과 더불어 성인 자녀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하는 현실적 문제 때문에 경제적 문제는 물론 건강측면에서 취약성을 지닐 수 있다[15]. 다행히, 자신의 건강수준에 대해 규칙적인 운동 등을 통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평가는 전환될 수 있으므로[34] 베이비붐 세대의 주관적인 건강상태에 대해서 개선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본다. 이 과정에서 한국 사회의 베이비붐 세대가 직면한 이른바 '샌드위치 세대(sandwich generation)'로서 이중적 특성을 고려한 정부 차원의 보건복지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여가활동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 베이비붐 세대는 사회참여 영역 중에서 취업 또는 친구 등과의 교류 영역보다 여가활동 영역에서 성공적 노화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선행연구 결과에서 연령에 따른 여가활동의 관계는 일관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공적 노화에 대해 메타분석을 실시한 연구에서 친교활동과 여가활동은 성공적 노화에 긍정적 요인으로 나타났다[35]. 65세 이상 노인들의 여가활동 지속의도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65세~69세 노인 집단이 여가활동 지속 의도가 가장 높았으며, 그 연령 이후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85세 이상에서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6].

반면에, 또 다른 연구에서는 전기노인(64세 이하), 중기노인(65세~74세), 후기노인(75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여가활동 참여도를 살펴본 결과, 연령이 상대적으로 젊은 집단에서 참여하는 여가활동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37]. 더욱이 사회계층 변수에 따른 여가 격차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여가활동을 자주 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연령이 높을수록 여가만족도는 오히려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38]. 또한,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자의 취업 비율이 72%로 나타난 바와 같이 노년기 경제활동 참여에 따라 여가활동이 상대적으로 제약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노인의 여가활동 참여와 성공적 노화의 관계에 대해 단정할 수 없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주의를 요한다고 볼 수 있다.

2. 성공적 노화에 대한 집단별 수준 차이

성공적 노화에 대해 조사대상자들의 특성에 따른 집단별 수준 차이를 살펴본 결과, 조사대상자들의 개인적 특성 중에서 성별($p<.001$), 거주 지역($p<.001$), 교육수준($p<.001$)에 따라 집단별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가족 지지적 체계 중에서 배우자 유무($p<.001$), 자녀관계 만족도($p<.001$), 그리고 경제적 체계 중에서 가구 순소득($p<.001$), 용돈 수준($p<.001$), 주거형태($p<.001$)에 따라 집단별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본 연구에서는 남성인 경우, 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대학교 졸업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자녀관계 만족도가 90점 이상인 경우, 가구 총소득이 생활비보다 많은 경우, 용돈이 21만원 이상인 경우, 자가에 거주하는 경우에 성공적 노화 수준이 다른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대해 개인적 특성, 가족 지지적 체계, 경제적 체계 등 3개 영역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자들의 성공적 노화 수준은 성별, 거주 지역, 교육수준에 따라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베이비붐 세대 중에서 남성, 도시 지역에 거주

하는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성공적 노화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성별, 교육수준에 따라 성공적 노화 수준이 유의미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34], 또 다른 연구에서는 성별, 교육수준에 따라 성공적 노화를 충족하는 비율이 다른 것으로 나타나[13] 본 연구결과를 간접적으로 지지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가족 지지적 체계와 관련하여, 조사대상자들의 성공적 노화 수준은 배우자 유무, 자녀관계 만족도에 따라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베이비붐 세대 중에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자녀와의 관계만족도가 높을수록 성공적 노화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는 배우자와 자녀와의 관계가 지지적인 경우에 성공적 노화의 충족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13],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성공적 노화 수준이 유의미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34][39] 본 연구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셋째, 경제적 체계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자들의 성공적 노화 수준은 가구 순소득, 용돈 수준, 주거형태에 따라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베이비붐 세대 중에서 가구의 총소득이 생활비보다 많은 경우, 용돈이 많을수록, 자가 형태로 거주하는 경우에 성공적 노화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경제상태가 양호할수록 성공적 노화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39][40] 본 연구결과와 동일한 맥락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주거형태와 성공적 노화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결과를 비교할 수 없지만, 본 연구와 동일한 자료를 이용한 연구에서 주거 점유형태가 자가인 경우에 생활만족도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40] 본 연구결과를 간접적으로 지지해 주고 있다.

3.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들의 교육수준, 배우자 유무, 자녀관계 만족도, 가구 순소득, 용돈 수준, 주거형태가 성공적 노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21만원 이상의 용돈($\beta=20$), 대학교 졸업 이상의 교육수준($\beta=14$), 90점 이상의 자녀관계 만족도($\beta=13$) 경우에 성공적 노화에 크

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외연구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에서는 성공적 노화에 대해 소득수준, 교육수준, 혼인상태는 그 영향력이 작은 것으로 보고되어 본 연구결과와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41]. 더욱이 배우자 유무는 한국 노인에게 성공적 노화를 위한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여러 선행연구에서 보고되었으나, 국외에서는 개인생활 또는 독립생활이 보다 강조되기 때문에 배우자와 자녀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볼 수 있다[42].

이러한 연구결과에 대해 요인에 따라 3개 영역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베이비붐 세대의 성공적 노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경제적 체계에서의 용돈 수준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베이비붐 세대는 은퇴시기에 접어들면서 근로활동이 제한적이거나, 머지않아 실질적인 경제활동에서 배제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그리고 고령자 계층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의료비 등 가계 보건 의료비 지출의 증가는 불가피하여 노인 가계에서의 의료비는 필수재 특성을 갖게 되며, 현재의 미흡한 공적 연금체계 때문에 대부분의 의료비는 자신의 실질소득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실질구매력을 유지한다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43]. 더욱이 현재의 베이비붐 세대는 노후생활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요인으로 보고되는 공적이전소득도 크게 부족하기 때문에[44] 일상에서의 생활자비에 민감하며 실질적인 소비생활과 직결되는 용돈 수준이 성공적 노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다른 선행연구에서도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노인의 경제상태가 양호할수록 신체적·사회적 노후준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4], 고령화 연구패널조사를 이용하여 성공적 노화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한 연구에서도 경제상태가 성공적 노화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3]. 따라서 노년기에 적합한 양질의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부족한 공적연금의 현실을 직시하여 저소득 가구를 중심으로 사적연금에 대한 연금세제 혜택을 부여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재정에 대한 공사(public-private) 간 유기적인 역할 분담을 통하여 경제적 안정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둘째, 베이비붐 세대의 성공적 노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적 특성에서의 교육수준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한국 사회에서의 교육수준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 경로를 통해서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보고되었으며[40], 교육수준은 노년기의 경제활동 참여와 사회적 관계망 형성 등 노년기의 삶을 예측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나타났다[45].

그리고 베이비붐 세대뿐만 아니라 이미 노년기를 보내고 있는 이전세대에서도 높은 교육수준은 노년기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주관적 건강상태와 IADL 등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31]. 한국 사회에서 노인의 교육수준은 소득과 더불어 사회적 계층 특성을 지니고 있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46] 노년기에 진입하는 베이비붐 세대를 위해 과거의 교육수준을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요인을 발굴하는 작업을 시도하거나, 노인을 위한 평생교육 체제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베이비붐 세대의 성공적 노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가족 지지적 체계에서의 자녀관계 만족도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베이비붐 세대는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가 이전노인 세대보다 많기 때문에 자녀와의 관계가 베이비붐 세대의 삶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실제로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자녀관계가 성공적 노화를 예측하는 요인으로 보고되었으나[47], 또 다른 연구에서 가족관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베이비붐 세대가 이전 노인세대보다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나[33] 본 연구결과와 다소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일부 연구에서는 자녀 유무, 자녀와의 관계 수준은 성공적 노화와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13] 각각의 연구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가족 지지적 체계에서의 배우자 유무는 베이비붐 세대의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성공적 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39] 본 연구결과를 지지해 주고 있으나, 또 다른 연구에서는 배우자 유무는 성공적 노화와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나[22] 각각의 연구에 따라 배우자 유무와 성공적 노화의 관계는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의 가족 지지적 체계와 성공적 노화의 관계에 대해 보다 광범위하고 심층적인 후속연구가 진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와 함께 베이비붐 세대의 가족건강성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노년기 생활에 부정적 요인을 상쇄하거나 그 기능을 대리적(substitute) 차원에서 제공할 수 있는 요인을 발굴함으로써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망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전체 인구의 15%를 차지하는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기에 진입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베이비붐 세대의 성공적 노화에 주목하였고, 성공적 노화의 대표적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Rowe & Kahn의 이론을 적용하여 베이비붐 세대의 성공적 노화 수준 및 영향요인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성공적 노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성공적 노화의 하위요인에 따라 성공적 노화로 판단된 비율이 크게 다르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의 성공적 노화를 증진하기 위해서 성공적 노화로 판단된 비율이 낮은 영역을 중심으로 관련 요인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 조속히 수립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그리고 베이비붐 세대의 교육수준, 배우자 유무, 자녀관계 만족도, 가구 순소득, 용돈 수준, 주거형태가 성공적 노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대상자의 용돈 수준, 교육수준, 자녀관계 만족도 등이 성공적 노화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의 성공적 노화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인을 강화하고 평생교육을 활성화하는 한편 배우자 사별과 같은 통제 불가능한 요인과 달리 자녀관계와 같이 중재가 가능한 요인을 중심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중재 프로그램 내지 세대통합교육을 진행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성공적 노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국외연구에서는 소득수준, 교육수준, 혼인상태 등과 성공적 노화의 관계가 약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에서의 연구들과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으며, 최근 노인들은 노년기 삶을 자녀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자녀와의 독립적인 관계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자녀 지지와 성공적 노화의 관계가 더욱 약화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 노인들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보다 엄밀한 개념화를 시도하고, 그에 대한 측정방식을 향상시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합의된 성공적 노화의 개념을 토대로 성공적 노화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을 발굴하여 성공적 노화를 증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심각한 질환을 앓고 있는 등의 이유로 조사대상자에서 배제된 베이비부머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연구결과의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앞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건강행태, 사회 참여 등에서의 삶의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종단적 연구를 진행하거나, 양적연구 결과에 대해 심층 인터뷰를 추가적으로 진행하는 통합적 연구방법을 적용한다면 보다 정확한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방법은 후속연구에서 실천해 보고자 한다[48].

* 이 논문은 주저자의 석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참고 문헌

[1]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대전: 통계청, 2016.
 [2] 차성란,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미래 사회적 자본,”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제16권, 제1호, pp.67-83, 2012.
 [3] 최은영, 최혜경, “성공적 노화 인식과 은퇴 기대가 은퇴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 Financial Planning Review, 제8권, 제4호, pp.23-57, 2015.
 [4] 정순돌, 이현희, “가족특성과 노후준비의 관계,” 노인복지연구, 제58권, pp.209-231, 2012.
 [5] 이은환, 최현진, 김희선, “베이비부머의 의료이용 관련 영향요인 분석연구,” 보건사회연구, 제35권, 제3호, pp.335-354, 2015.
 [6] 이옥진, 박현식, “베이비부머 대상 연구의 성공적 노화

모델 적용 경향 분석,” 한국노년학, 제37권, 제1호, pp.251-270, 2017.
 [7] 김희경,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의 성공적 노화 영향요인,” 한국노년학, 제32권, 제3호, pp.819-834, 2012.
 [8] 강옥모, 김지훈, “베이비부머의 성공적 노화 주요 변인간의 인과관계 연구,” 노인복지연구, 제65권, pp.341-360, 2014.
 [9] 김혜숙, 강기은, “제주 노인들의 성공적 노화에 관한 인식 연구,” 노인복지연구, 제59권, pp.159-186, 2013.
 [10] 김미령, “노후연령 인식 여부에 따른 성공적 노화 구성요소 차이 및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제65권, pp.227-245, 2013.
 [11] 박창제, “베이비붐과 전 베이비붐의 재무적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제63권, pp.309-335, 2014.
 [12] 김은주, “노인의 성공적 노화 측정도구에 대한 요인구성타당도 평가,” 대한간호학회지, 제43권, 제4호, pp.568-578, 2013.
 [13] 한송이, 윤순녕, “한국 노인의 성공적 노화와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지역사회간호학회지, 제26권, 제4호, pp.372-379, 2015.
 [14] 이수진, 송미순, “Rowe & Kahn의 모델을 바탕으로 한 한국 노인의 성공적 노화,” 대한간호학회지, 제45권, 제2호, pp.231-239, 2015.
 [15] 전병주, 박현주, 김현수, “남성 베이비부머의 은퇴 유형별 외상 수준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한국웰니스학회지, 제14권, 제1호, pp.69-80, 2019.
 [16] 강인, “베이비붐 세대의 성공적 노화 인식과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6권, 제9호, pp.460-472, 2016.
 [17] J. W. Rowe and R. L. Kahn, *Successful aging*, New York: Pantheon Books, 1998.
 [18] L. Araújo, O. Ribeiro, L. Teixeira, and C. Paúl, “Successful aging at 100 years: the relevance of subjectivity and psychological resources,” International psychogeriatrics, Vol.28, No.2, pp.179-188, 2016.
 [19] R. D. Romo, M. L. Wallhagen, L. Yourman, C. Yeung, G. Micco, and A. K. Smith, “Perceptions of successful aging among diverse elders with late-life disability,” The Gerontologist, Vol.53,

- No.6, pp.939-949, 2013.
- [20] 성혜영, 조희선, "Rowe와 Kahn의 구성요소를 활용한 성공적 노화 모델," 한국노년학, 제26권, 제1호, pp.105-123, 2006.
- [21] 전병주, 최은영, "다문화가족 노인의 성공적 노화 수준과 영향요인," 사회과학연구, 제32권, 제1호, pp.1-29, 2016.
- [22] 최혜경,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성공적 노화 수준과 예측요인," 사회과학연구, 제24권, 제1호, pp.193-217, 2013.
- [23] 안정신, 정영숙, 정여진, 서수균, "성공적 노화 연구의 비판적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제24권, 제3호, pp.35-54, 2011.
- [24] 이민관, 이주영, "노인 가구의 특성에 따른 주택의 점 유형태 및 유형 선택에 관한 연구," 디자인융복합연구, 제24권, pp.88-103, 2010.
- [25] 강소량, 최은영, "베이비붐 세대와 이전 및 이후 세대 간 비교분석," 사회보장연구, 제32권, 제2호, pp.1-30, 2016.
- [26] 백지은, 최혜경, "한국 사회와 서구 사회의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에 대한 비교 문화적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5권, 제2호, pp.137-153, 2007.
- [27] 박경숙, "한국 노인의 사회적 관계," 한국사회학, 제34권, 제3호, pp.621-647, 2000.
- [28] 배나래, 박충선, "노년기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적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제29권, 제2호, pp.761-779, 2009.
- [29] 한국노동연구원, *고령화연구패널조사 기본조사 데이터 생성변수 안내서*,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2007.
- [30] 김명일, 김세진, 김준표, "전·후기 노인의 건강증진행위 유형과 우울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8권, 제3호, pp.285-307, 2017.
- [31] 김정연, 이석구, "노인에서 건강행태, 건강수준, 일상생활수행능력, 건강관련 삶의 질과의 관계," 한국노년학, 제30권, 제2호, pp.471-484, 2010.
- [32] 김지영, 최은영, 김혜숙, "노인의 건강증진행위, 생활만족도 및 가족지지와의 관계 연구," 노인간호학회지, 제5권, 제1호, pp.7-16, 2003.
- [33] 강상경, "삶의 만족도와 관련 요인의 세대 간 차이에 대한 탐색적 연구," 사회복지연구, 제43권, 제4호, pp.91-119, 2012.
- [34] 신영희, 이혜정, "일도시 노인의 성공적 노화 관련 요인," 한국노년학, 제29권, 제4호, pp.1327-1340, 2009.
- [35] 정여진, 유나영, 김비아, 신현정, 정영숙, "한국인의 성공적 노화 관련 변인에 관한 메타분석," 한국노년학, 제34권, 제4호, pp.781-797, 2015.
- [36] 안주석, 임근욱, "노인의 여가활동 참여와 지속의도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저널, 제31권, 제2호, pp.113-125, 2017.
- [37] 조경옥, "여성 노인의 건강지위, 사회적 지지와 여가활동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제27권, pp.203-229, 2005.
- [38] 남은영, 최유정, "사회계층 변수에 따른 여가 격차," 한국인구학, 제31권, 제3호, pp.57-84, 2008.
- [39] 한수정, 한진숙, 문영숙, "노인의 성공적 노화와 영향요인," 성인간호학회지, 제21권, 제4호, pp.423-434, 2009.
- [40] 전병주, 최은영, "노인의 사회적 배제 특성, 주거 점 유형태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및 사회적 관계망의 완충효과," 사회과학연구, 제26권, 제1호, pp.77-107, 2015.
- [41] C. A. Depp and D. V. Jeste, "Definitions and predictors of successful aging: comprehensive review of larger quantitative studies," The American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Vol.14, No.1, pp.6-20, 2006.
- [42] 안정신, 강인, 김윤정, "한국 중노년 성인들의 노화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13권, 제4호, pp.225-245, 2009.
- [43] 라규원, 이해종, "전기노인과 후기노인의 가계의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비교분석,"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제23권, 제2호, pp.37-60, 2017.
- [44] 김기홍, 양세정, "은퇴가구의 경제상태 및 은퇴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Financial Planning Review, 제10권, 제1호, pp.27-60, 2017.
- [45] 김안나, "한국의 사회적 배제 실태에 관한 실증적 연구," 사회이론, 제32권, pp.227-330, 2007.
- [46] 박순미, "노인의 건강상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제53권, pp.291-318, 2011.
- [47] 안지원, "지역사회 노인의 성공적 노화 예측요인과 초월감의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6권, 제4호, pp.582-593, 2016.
- [48] 전병주, *베이비붐 세대의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요인*, 한국교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저 자 소 개

전 병 주(Byeong-Joo Jeon)

정회원



- 2014년 2월 : 충북대학교 대학원 아동복지학과(문학박사)
- 2014년 3월 :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시간강사

〈관심분야〉 : 사회보장, 보건의료, 노인복지

한 혜 숙(Hye-Sook Han)

정회원



- 2002년 2월 : 한양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1984년 5월 : 한국교통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 간호교육, 재활간호